



- ① ㉠ : 실질 형태소      ② ㉡ : [다쳐]  
 ③ ㉢ : 형식 형태소      ④ ㉣ : [고지듣따]  
 ⑤ ㉤ : [굳치다]

3.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는 문장은?

<보기>

음운 변동은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 탈락,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그 여자가 보고 싶다.  
 ② 점잖은 신사가 오고 있다.  
 ③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문을 잠가라.  
 ④ 어서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전해라.  
 ⑤ 넓은 운동장에서 친구와 함께 뛰었다.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소리 내어 글을 읽을 때 분명 한글로 된 단어인데도 정확한 발음을 몰라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 말에서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음운의 변동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그러한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다.

(나)

‘신라’, ‘권력’은 각각 [실라], [퀄력]으로 발음된다. 두 단어 모두 표기대로 발음하지 않고 ‘ㄴ’이 ‘ㄹ’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처럼 어떤 음운이 놓이는 음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은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음운 변동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무조건 표기된 대로만 발음하기로 약속한다면 언어생활이 훨씬 쉬워질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신라’, ‘권력’을 표기된 그대로 발음해 보자. ‘ㄴ’을 ‘ㄹ’로 바꾸지 않으면

두 음절을 이어서 발음하기가 쉽지 않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음운이 변동되는 까닭은 대개 발음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라)

음운 변동의 결과를 기준으로 그 종류를 나누어 보면 대게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음운 교체 - 발음할 때 어떤 음운은 다른 음운으로 바뀌기도 한다.
- 음운 탈락 - 있던 음운이 발음하는 과정에서 사라지기도 한다.
- 음운 첨가 - 있던 음운이 발음하는 과정에서 사라지기도 한다.
- 음운 첨가 - 원래는 없던 음운이 발음 과정에서 덧붙는 현상도 있다.
- 음운 축약 - 발음할 때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4. 윗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확한 발음을 위한 표준 발음이 규정되어 있다.  
 ② 변동되는 이유는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③ 단어를 표기대로 발음하면 언어생활이 더 수월해질 수 있다.  
 ④ 음운 변동을 이해하면 정확하고 효율적인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다.  
 ⑤ 음운 변동이란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음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다.

5. 다음 밑줄 친 단어 중에서 발음할 때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 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밥하고[바파고] 떡이다.  
 ② 옷에[오세] 흠까지 묻히고 시내를 쏘다녔다.  
 ③ 우리는 손을 잡고[잡꼬] 마냥 즐거워하였다.  
 ④ 그는 가끔 고전음악을 즐겨 듣는다[듣는다].  
 ⑤ 칼날[칼랄]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6. <보기>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가. 낱고[나:코], 좋지[조:치], 쌓던[싸턴]  
나. 먹히다[머키다], 꽃히다[꼬치다], 만형[마형]

- ① 음절 끝에서 음운이 교체된다.
- ② 하나의 음운이 완전히 탈락한다.
- ③ 모음의 영향으로 자음이 교체된다.
- ④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교체된다.
- ⑤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축약된다.

7. <보기>의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 낮→[낱], 숲→[슈]
- ㉡ 약밥→[약뻬], 잡다→[잡따]
- ㉢ 끊겨서→[끈켜서], 법학→[버팍]

- ① ㉠과 ㉡은 음절 종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변동이다.
- ② ㉠과 ㉢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밝히다→[발키다]'를 들 수 있다.
- ③ ㉠은 거센소리를 예사소리로, ㉢은 된소리를 거센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 ④ ㉡은 음운의 교체에, ㉢은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
- ⑤ ㉡과 ㉢의 변동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것이다.

8. <보기>의 ㉠~㉣에서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옷을 책상 위에 쌓지[싸치] 마라.
- ㉡ 옷에 흠까지[흑까지] 묻었다.
- ㉢ 그는 춤을 곧잘[곤잘] 춘다.
- ㉣ 어머니는 만머느리[만머느리]라서 고생하신다.
- ㉤ 아침밥[아침뻬]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 ① ㉠의 예 : 먹히다                      ② ㉡의 예 : 값싸다
- ③ ㉢의 예 : 밤길                        ④ ㉣의 예 : 겁내다
- ⑤ ㉤의 예 : 촌사람

9. <보기>는 음운 변동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받침 'ㄱ, ㄷ, ㅂ' 뒤의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국밥[국뻬], 뻬다[뻬따].....㉠
- 어간 받침 'ㄴ, ㄹ' 뒤의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넘고[넙꼬].....㉡
- 관형사형 '-ㄹ' 뒤의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할 수는[할쑤는], 만날 사람[만날싸람].....㉢

- ① '밭갈이'가 [받까리]로 발음되는 것은 ㉠에 해당하는 것이겠군.
- ② '있고'가 [읷꼬]로 발음되는 것은 ㉠에 해당하는 것이겠군.
- ③ '산뜻하다[산뜨타다]'를 ㉡의 예로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껴안다'가 [껴안따]로 발음되는 것은 ㉡의 예로 추가할 수 있겠군.
- ⑤ '먹을 것[겪]'을 ㉢의 예로 추가할 수 있겠군.

10. <보기>를 참고할 때 연결된 표기의 용례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제5절] 두음 법칙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 [붙임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
-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
- [붙임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 -----㉣
-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 ㉞

- ① ㉞ : 유대(紐帶) (예 : 유대 의식)
- ② ㉞ : 은익(隱匿) (예 : 범인의 은익을 도운 사람)
- ③ ㉞ : 유행(流行) (예 : 유행이 지난 옷)
- ④ ㉞ : 실패율(失敗率) (예 : 높은 실패율)
- ⑤ ㉞ : 뇌성(雷聲) (예 : 요란한 뇌성)

11.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 두 단어가 모두 옳은 것은?

<보기>

다음 법칙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음운이 탈락하는 두음 법칙이 있고, 두 번째는 음운이 교체되는 두음 법칙이 있다.

- ① 낙원(樂), 여자(女子)
- ② 노인(老人), 내일(來日)
- ③ 여자(女子), 내일(來日)
- ④ 양심(良心), 이용(利用)
- ⑤ 연도(年度), 내일(來日)

12. <보기>를 참고할 때 동화의 양상이 다른 것은?

<보기>

- 순행 동화 : 뒤의 음운이 앞의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와 비슷하거나 같게 소리 나는 현상.  
예) 달님[달림], 강릉[강능]
- 역행 동화 : 앞의 음운이 뒤의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와 비슷하거나 같게 소리 나는 현상.  
예) 편리[펼리], 까막눈[까망눈]

- ① 남루                      ② 작년                      ③ 날말
- ④ 밥물                      ⑤ 국민

13. <보기 1>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우리말의 받침의 발음할 때,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앞말의 받침소리는 그대로 연음된다. 한편, 받침이 있

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앞말의 받침소리는 일곱 개의 대표음 중 하나로 바뀐 후 연음된다.

<보기 2>

- ㉠ 곁을                      ㉡ 핫웃                      ㉢ 헛웃음
- ㉣ 웃어른                      ㉤ 깨끗이                      ㉥ 집일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 ⑤ ㉡, ㉢, ㉣, ㉥

## 최다 빈출유형2

한글 맞춤법과 관련하여 소리대로 적은 것과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을 구분하거나 이에 대해 묻는 사이시옷 표기, 띄어쓰기 등,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소리대로 적는 것과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의 원리, 세부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해야 합니다.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글 맞춤법'은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시작된다.

제1장 총칙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14.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윗글의 규정에 어긋난 것은?

- ① 그 일은 내가 도와줄게.
- ② 나는 그들을 다시 보기가 멋쩍었다.
- ③ 그는 연설문 초안을 꼼꼼이 작성하였다.
- ④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 ⑤ 이번 여행은 부모님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하다.

## 정답 및 해설

### 내신형 기출 문제

#### 1. <답> ①

㉠ 모음은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 전설·후설 모음으로, 입술의 모양에 따라 원순·평순 모음으로, 혀의 높이에 따라 고·중·저 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이중모음 'ㅑ'는 'ㅣ'와 'ㅓ'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소리이다. 이와 같이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 음운은 뜻을 가지지 않는다. 음운은 '뜻을 구분하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 뜻을 가지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형태소이다.

㉣ 상향이중모음은 'ㅑ,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ㅞ'이다. 이는 모두 반모음이 단모음 앞에 오는 구조의 음운이다.

㉤ 파찰음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거나 파열과 동시에 공기의 통로를 좁혀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이다.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는 파열음이다.

㉥ 거센소리는 숨을 거세게 하여 내는 소리를 의미한다. 조음 기관에 강한 긴장을 일으켜 발음하는 소리는 된소리이다.

#### 2. <답> ④

'곧이듣다'는 구개음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고지듣따]로 발음된다.

① ㉠에 적절한 말은 '형식 형태소'이다.

② ㉡에 적절한 말은 '다쳐'이다. 음운상 '다쳐'가 맞지만, 표준 발음법상 '저, 쩌, 처'는 각각 '저, 쩌, 처'로 발음한다.

③ ㉢에 적절한 말은 '실질 형태소'이다.

⑤ ㉤에 적절한 말은 '구치다'이다.

#### 3. <답> ⑤

'넓은 운동장에서 친구와 함께 뛰었다'에서는 '뛰었다[뛰었따]'를 통해 음절 끝소리 규칙, 된소리

되기 현상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교체 현상에 해당한다.

① '여자'는 한자음으로는 '녀자'이지만, 두음 법칙이 적용되며 '녀'의 초성 'ㄴ'이 탈락되어 '어자'로 쓰고 읽는다.

② '점잖은[점자는]'에서 'ㅎ'이 탈락한다.

③ '잠가라'의 어간은 '잠그-'이다. 이것이 어미 '-아라'와 결합하며 어간의 모음 'ㅡ'가 탈락한다.

④ '가서'는 어간 '가-'와 어미 '-아서'가 결합하면서 어간 모음 'ㅏ'가 탈락한다.

#### 4. <답> ③

단어를 표기대로만 발음하면 말하는 사람이 발음에 불편을 겪는 단어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언어 생활이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① (나)에서 표기와 다른 '신라[실라], 권력[귄력]'의 발음을 제시한 것을 통해 표준 발음이 규정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 <답> ②

'웃에[오세]'는 받침 'ㅅ'이 아무런 변동 없이 뒷글자의 초성에서 발음되는 '연음 현상'만 일어난다.

① '밥하고[바파고]'에서는 'ㅂ'과 'ㅎ'이 하나로 줄어 'ㅍ'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③ '잡고[잡꼬]'에서는 'ㄱ'이 'ㅋ'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④ '듣는다[든는다]'에서는 'ㄷ'이 'ㄴ'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⑤ '칼날[칼랄]'에서는 'ㄴ'이 'ㄹ'로 교체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 6. <답> ⑤

<보기>에 제시된 단어에서는 모두 예사소리 자음과 'ㅎ'이 결합하여 거센소리 자음이 되는 거센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① 음절 끝소리에서 음운이 교체되는 현상은 '밖'이 '[박]'으로 발음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기>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② 하나의 음운이 탈락하는 현상은 '술'과 '나무'가 합쳐져 '소나무'가 될 때 '술'의 'ㄹ'이 사라지는 현상과 같은 것으로 <보기>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③ 모음에 의해 자음이 교체되는 현상은 '굳이'의 'ㄷ'이 모음 'ㅣ'를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 'ㅈ'으로 바뀌어 '[구지]'로 발음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기>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④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교체되는 현상은 '국물'을 발음할 때 'ㄹ'에 영향을 받은 'ㄱ'이 'ㅇ'으로 교체되어 '[궁물]'로 발음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기>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7. <답> ④

㉠은 된소리되기, ㉡은 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한다. 이는 각각 교체, 축약 현상에 속한다.

① ㉠에서는 음절 종성의 자음이 변동되지 않는다.

② '밝히다[발키다]'는 ㉡의 변동만 일어난 예에 해당한다.

③ ㉡에서 된소리가 거센소리로 바뀌는 현상은 확인할 수 없다.

⑤ ㉠과 ㉡은 모두 동화 현상과는 관계가 없다.

8. <답> ③

'곧잘[곧잘]'은 받침 'ㄷ' 뒤에 이어지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 현상에 해당하지만, '밤길[밤길]'은 합성어에서 앞말이 올림소리로 끝나고 뒷말이 예사소리로 이어질 경우 된소리로 바뀌 발음하는 사잇소리 현상에 해당한다.

① '쌍지[싸치]'와 '먹히다[머키다]'는 모두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다.

② '흙까지[흑까지]'와 '값싸다[갑싸다]'는 모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④ '만며느리[만며느리]'와 '겁내다[검내다]'는 모두 비음화가 일어난다.

⑤ '아침밥[아침뺑]'과 '촌사람[촌싸람]'은 모두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9. <답> ③

'산뜻하다[산뜨타다]'의 어간은 '산뜻하-'이다. 따라서 ㉠의 현상과 관련이 없다.

① '밭갈이[밭까리]'에서는 받침 'ㄷ' 뒤에서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② '있고[인꼬]'에서는 받침 'ㄷ' 뒤에서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④ '껴안다[껴안따]'에서는 어간 받침 'ㄴ' 뒤에서 어미의 첫소리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⑤ '먹을 것[머글꺼]'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서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10. <답> ②

'은익'은 잘못된 표기이고 '은닉'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① '유대'는 '뉴대'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뉴'를 '유'로 적은 형태이다.

③ '유행'은 '류행'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류'를 '유'로 적은 형태이다.

④ '실패울'은 모음 'ㅞ'의 뒤에 이어지는 '를'을 '울'로 적은 형태이다.

⑤ '뇌성'은 '뢰성'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뢰'를 '뇌'로 적은 형태이다.

11. <답> ②

'노인'과 '내일'은 각각 '로인'과 '래일'의 'ㄹ'이 'ㄴ'으로 교체되는 두음 법칙이 일어났다.

①, ③ '여자'는 '녀자'의 'ㄴ'이 탈락하는 두음 법칙이 일어났다.

④ '양심'과 '이용'은 각각 '량심'과 '리용'의 'ㄹ'이 탈락하는 두음 법칙이 일어났다.

⑤ '연도'는 '년도'의 'ㄴ'이 탈락하는 두음 법칙이 일어났다.

12. <답> ①

'남루[남누]'는 순행 동화에 해당한다.

② '작년'은 앞말이 바뀌어 '[장년]'으로 발음되는 역행 동화가 일어난다.

③ '날말'은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뒤 앞말이 바뀌어 '[난말]'로 발음되는 역행 동화가 일어난다.

④ '밤물'은 앞말이 바뀌어 '[밤물]'로 발음되는 역행 동화가 일어난다.

⑤ '국민'은 앞말이 바뀌어 '[궁민]'으로 발음되는 역행 동화가 일어난다.

13. <답> ③

㉠ '[하돋]'으로 발음되며 실질 형태소 '웃'이 이어져 <보기 1>의 변동 현상이 일어난다.

㉡ '[허두슴]'으로 발음되며 실질 형태소 '웃음'이 이어져 <보기 1>의 변동 현상이 일어난다.

㉢ '[우더른]'으로 발음되며 실질 형태소 '어른'이 이어져 <보기 1>의 변동 현상이 일어난다.

㉣ '[겨틀]'로 발음되며 형식 형태소 '을'이 이어져 <보기 1>의 변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깨끄시]'로 발음되며 형식 형태소 '이'가 이어져 <보기 1>의 변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짐닐]'으로 발음되며 실질 형태소 '일'에 'ㄴ'이 첨가된 형태인 '[닐]'이 이어져 <보기 1>의 변동 현상이 아닌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14. <답> ③

한글 맞춤법 제51항에 따르면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꼼꼼이'가 아니라 '꼼꼼히'가 올바른 표기이다.

① 한글 맞춤법 제53항에 따르면 '-(으)ㄹ게'와 같은 어미는 된소리로 발음하더라도 예사소리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줄게'로 표기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② 한글 맞춤법 제54항에 따르면 '적다[少]'의 뜻이 없이 [쩍따]로 발음되는 경우는 '쩍다'로 적는다. 따라서 '멋쩍었다'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④ '-든지'는 선택의 의미를, '-던지'는 회상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어미이다. 따라서 '집'과 '학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장의 의미상 '-든지'로 표기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⑤ 한글 맞춤법 제52항에 따르면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따라서 '승낙'으로 표기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15. <답> ⑤

'발이[바치]'를 소리대로 적지 않는 것은 의미를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① ㉠은 모두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단어이다.

② '놀다'에 어미 '-아서'를 붙일 경우 '놀아서'로 표기해야 한다. 이는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것으로,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 것에 해당한다.

③ '하늘'과 '손톱'에 조사 '이'를 붙일 경우 각각 '하늘이', '손톱이'로 표기해야 한다. 이는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것으로,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 것에 해당한다.

④ ㉡의 단어들은 각각 '[받]', '[바치]', '[받뚜둑]'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이렇게 표기할 경우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은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것으로,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 것에 해당한다.

16. <답> ①

'드러나다'와 '쓰러지다'는 각각 '들다, 쓸다'에서 온 말이지만, 그 의미가 본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② '떨다', '흠다'의 원형을 밝혀 적은 단어이다.

③ '엎다'의 원형을 밝혀 적은 단어이다.

④ '흠다', '들다'의 원형을 밝혀 적은 단어이다.

⑤ '들다'의 원형을 밝혀 적은 단어이다.

17. <답> ④

'고치다'는 '곧다'의 어간 '곧-'에 접미사 '-히-'가 결합한 뒤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형태를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따라서 접미사 '-리-'가 결합하였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의 뒤에 이어지는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로 보아 '먹다'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의 앞에서 '먹-'과 '-이-'를 소리대로 적어서 '머기다'의 형태로 표기할 경우 어간 '먹-'의 형태가 바뀌면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보아 어간의 형태를 밝혀 적어야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앞 문단의 내용과 해당 문단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어간의 의미가 유지될 경우 원형을 밝혀 적지만, 어간의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